백두산2

21세기 태양 속도전

주체91(2002)년 5월 27일

속도전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며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속도전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입니다.≫

속도전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천리마를 타고 질풍같이 달려 온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와 문화예술사업을 지도하시는 과정에 얻은 귀중한 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일반화하신데 기초하여 새롭게 제시하신 독창적인 방침이다.

속도전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계속혁명의 사상을 구현하고 있다. 속도전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 없는 비약과 기적을 이룩해 나가는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이다.

속도전의 기본요구는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사업을 최대한으로 빨리 밀고 나가면서 그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속도전은 최단기간내에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는것이다. 빨리 한다고 하여 질을 낮추거나 질을 높인다고 하여 속도를 늦추는것은 다 속도전과 인연이 없다.

속도전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에 맞는 가장 적극적인 전투형식이다. 속도전을 벌리는 바로 여기에 모든것이 끊임없이 빨리 발전하는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실현하는 길이 있으며 질풍같이 내달려 남보다 먼저 공산주의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려는 우리 인민의 천리마정신, 비상한 혁명적정력을 구현하는 길이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을 힘 있게 벌려 나가는것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속도전을 벌려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또한 속도전을 적극 벌려야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과의 치렬한 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

속도전은 혁명하기를 좋아하고 투쟁하기를 좋아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일본새이다. 속도전을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우선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 모든것이 빨리 발전하게 되는 결정적요인은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있다. 그러므로 사상혁명을 앞세워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는것은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속도전을 힘 있게 벌릴수 있게 하는 가장 선차적인 조건으로 된다.

속도전을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또한 기술혁명을 힘 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것은 속도전을 적극 벌릴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속도전을 하려면 이와 함께 옳은 조직지도사업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속도전에 대한 지도에서 중요한것은 대중을 옳게 발동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드는 것이며 그들이 힘껏 일할수 있는 기술경제적조건을 원만히 보장해 주는것이다.

속도전을 위한 사상, 기술, 지도의 이 세가지 조건가운데서도 기본은 사상문제이다. 사람들의 사상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기술문제도 지도문제도 풀릴수 없다. 구경은 모든것이 다 사상문제이다. 그러므로 속도전은 결국 사상전이라고 말할수 있다.

정치사전

속도전

-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 일으킬데 대하여
- 모두 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 토지정리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다
- 속도전
- 속도전청년돌격대
- 6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투쟁
- 기본건설전선은 중심고리
- 거창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
- 당중앙의 70일전투
-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 새로운 대비약
-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투형식, 속도전
- 속도전의 선구자로
- 70일전투
- 뜻깊은 전국영웅대회
- 새로운 비례공식

6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투쟁

당앞에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투적 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사회주의건설을 빨리 다그쳐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개년계획완수를 위한 결정적투쟁에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이 시기 우리 혁명의 안팎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나라들은 일찌기 없었던 정치적위기와 경제적침체에 빠져 이로부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교활하고 음흉한 량면전술을 쓰면서 침략의 예봉을 계속 아세아에 돌리고 특히 우리 나라에 대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고 미쳐날뛰였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도 남조선괴뢰도당과의 군사적결탁을 더욱 강화하면서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에 가담하여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작전계획까지 만들어놓고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있었다. 자기들의 잔명을 전적으로 외세에 의탁하고있는 남조선괴뢰도당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군사분계선일대에 병력과 군사장비를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군사적도발을 매일과 같이 감행하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으며 극악무도한 ≪긴급조치≫를 련발하고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조성된 정세는 모든 분야에서 혁명과 건설을 더한층 다그쳐 우리의 혁명기지를 그 어느때보다도 반석같이 다지며 원쑤들의 어떠한 불의의 침공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준비태세를 갖출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 2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 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안팎의 정세를 깊이 분석하시고 변화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한편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당 제 5차대회가 내놓은 6개년계획을 앞당겨 끝내고 계속 혁신하여 가까운 앞날에 1,200만톤의 강철고지, 100만톤의 유색금속고지, 1억톤의 석탄고지, 5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고지, 2,000만톤의 세멘트고지, 500만톤의 기계가공품고지, 500만톤의 수산물고지, 500만톤의 화학비료고지, 10만정보의 간석지개간고지, 1,000만톤와 알곡고지를 점령할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은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는 가장 진공적인 방침으로서 조성된 복잡한 정세를 주동적으로 뚫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더욱 앞당기기 위한 혁명적인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목표가 달성되면 우리 나라는 중요공업제품의 인구 한사람당 생산량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들어서게 되고 사회주의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게 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위업을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전진을 이룩하게 된다.

또한 우리의 사회주의진지, 북반부혁명기지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비할바없이 강화될것이며 남조선인민들은 이에 고무되여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더욱 과감히 일떠서게 될것이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경제적위기에 빠져있을 때 주체조선에서 벌리는 사회주의대건설전투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우리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는 일대 시위로 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악의에 찬 비방과 중상을 일삼는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온갖 원쑤들에게 치명적타격을 주고 사회주의의 영예와 존엄을 빛내였으며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혁명적인민들에게 큰 고무를 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 점령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로 총진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진군운동에서 당면하게 힘을 집중하여야할 주요전선은 기본건설전선, 공업전선, 농업전선, 수송전선, 수산전선의 5개전선이 라고 가르치시였다.

이 5개전선은 사회주의 대 건설의 전반적인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위한 가장 중요한 전선들로서 이 전선들에 힘을 집중하여야만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빨리 점령할수 있으며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도 짧은 기간에 점령할수 있는 담보를 튼튼히 마련할수 있었다.

조선노동당약사≪70년대 속도전≫

거창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력사에서 일찌기 볼수 없었던 거창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는 전례없는 빠른 속도와 높은 질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수행해낼수 없었다.

당은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알맞는 가장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전투형식인 속도전을 최대한으로 벌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여기에 조직지도사업을 잘 안받침할데(어떤 일이나 행동 또는 리론 같은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내적으로 받쳐주는것) 대한 과업을 중요하게 내세웠다.

당은 무엇보다먼저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사람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태도와 활동방식, 사업방법과 사업작풍 등 모든 면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도록 하였다.

당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개조를 다그쳐나갔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참신하고 생기발랄한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게 하였다.

특히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마다에서 정치선전사업과 경제선동사업을 활발히 조직진행하여 생산자대중이 언제나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정을 안고 생산과 건설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휘하며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떨치게 하였다.

당은 전당적으로 벌어지는 당중앙위원회 편지토의사업을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조직진행하게 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실지 사회주의대건설의 보람찬 전투에서 보다 전면적으로 나타내도록 이끌었다.

당은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당은 3대혁명소조들로 하여금 실지 생산투쟁을 하고있는 근로자들 그리고 경험이 많은 일군들과 합심하여 당 제 5차대회에서 제시된 3대기술혁명의 력사적과업을 완수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필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당은 사대주의,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통하여 기술발전을 저애하는 낡은 사상잔재들을 뿌리뽑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벌리도록 이끌었다.

특히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술혁명수행의 앞장에 서서 생산자대중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고 주체적인 립장에서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다그쳐 3대기술혁명과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며 우리 나라 과학기술수준을 하루 빨리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다.

당은 사상혁명과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여기에 조직지도사업을 적극 안받침하도록 하였다.

먼저 각급 당조직들과 행정경제기관들로 하여금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옳게 조직동원하고 생산과 건설에 대한 기술경제적보장사업과 지휘를 정확히 하도록 이끌었다.

경제건설에 대한 조직지도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3대혁명소조운동에서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면서 국가경제기관일군들속에서 온갖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계속 강하게 벌리며 모든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어려운 일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우도록 하였다.

당은 로력문제를 푸는데 심중한 관심을 돌리였다.

로력문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계속 중요하게 제기되여왔지만 류례없이 거창한 새 건설을 수많이 예견하는 사회주의대건설과 관련하여 더욱 긴장하고 빨리 풀어야 할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당은 긴장한 로력문제를 풀기 위하여 기술혁신을 적극 추진시키는 한편 로력랑비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로력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추가적으로 얻은 많은 로력을 사회주의 대 건설의 주요전선을 지원하는데 돌리도록 하는 혁명적조치를 취하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로력랑비를 철저히 없애고 비생산로력과 간접로력을 대담하게 줄이며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한사람당 생산액을 훨씬 높이며 그리고 한사람이 두를,세몫씩 맡아하는 투쟁을 적극 벌림으로써 더 많은 로력을 사회주의대건설의 새 전투장들에 보내도록 하였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을 끝까지 관철하고야말 충성의 열정으로 들끓었다.

조선노동당약사
≪70년대 속도전≫

당중앙의 70일전투

당중앙은 대중의 고조된 혁명적열의에 기초하여 년말을 앞두고 전당, 전국, 전민을 총동원하는 ≪70일전투≫를 조직지도함으로써 새로운 천리마속도, ≪70일전투속도≫를 창조하여 영광의 1974년을 더욱 빛내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새로운 비약과 혁신이 일어났다.

1974년 11월과 12월에는 공업총생산액이 각각 그 전해의 같은 달에 비하여 148%, 152%로 늘어났다.

이것은 천리마의 진군을 다그쳐온 우리 나라 공업력사에도 일찌기 없었던 놀라운 속도였다.

이 거세찬 흐름속에서 김책제철소확장공사를 비롯한 대 야금기지, 전력기지, 화학공업기지, 건재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들을 개건, 확장, 신설하는 대공사들이 성과적으로 진척되였다.

주체공업의 힘있는 지원밑에 농업전선에서도 기적적인 성과가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1975년에도 기본건설, 공업, 농업, 수송, 수산의 5개전선에 계속 화력을 집중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의 총돌격전을 벌려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들을 우리 당창건 30돐이 되는 10월 10일전으로 앞당겨 점령할것을 호소하시고 1975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 5기 제 10차전원회의에서 그 구체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전원회의를 전후하여 전국농업대회, 공업열성자회의를 소집하시고 우리의 영웅적 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을 사회주의대건설의 보람찬 투쟁에로 다시금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였다.

당은 온 나라에 사회주의대건설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기 위하여 당과 국가의 우수한 일군들을 각 도와 중요 공장, 기업소들에 파견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전당, 전국이 달라붙어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선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혁명적인 대책을 실시하였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로운 더 높은 충성의 속도를 창조하면서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쳐나갔다.

그리하여 인민경제발전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들을 조선로동당창건 30돐전으로 점령하고 공업총생산액적으로 6개년계획을 1년 4개월이나 앞당겨 완수함으로써 당창건 30돐을 더욱 영광스럽고 뜻깊은 명절로,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갔다.

여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기하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였다.

조선노동당약사
≪70년대 속도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인 대중운동입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20페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킨것으로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전면적으로 더욱 다그쳐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전인민적 대진군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우리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고 사회주의 경제, 문화 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루어진 조건에서 지난날의 그 어느 대중운동보다도 더 높은 목표인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당의 강령을 직접 투쟁구호로 내세웠다.

당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적인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 운동을 당사업과 밀착시켜 지도하여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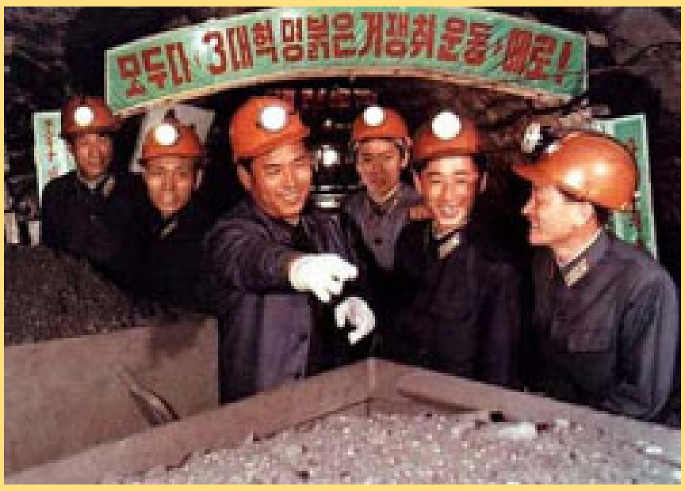
모든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튼튼히 틀어쥐고 이 운동이 제기한 과업을 해결하는데 힘을 집중하였다.

당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조직전개함에 있어서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였으며 이 운동을 지도하는데서 3대혁명소조를 적극 내세웠다.

당이 지펴올린 검덕과 청산리에서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첫봉화는 삽시에 온나라에 타번져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은 물론 교육, 문화, 보건 기관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단위들에 빨리 파급되였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밑에 전개된 이 대중운동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공업부문에서는 6개년계획의 미완충고지였던 강철고지와 세멘트고지를 마저 점령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이미 점령한 다른 고지들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6개년계획과제들을 훨씬 넘쳐수행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다.

농업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6년 10월과 1977년 4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 5기 제 12차전원회의와 제 13차전원회외에서 제시하신 밭관개의 완성, 다락밭건설, 토지 정리와 개량, 치산치수, 간석지개간을 내용으로 한 자연개조 5대방침과 지하수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전당적, 전인민적 투쟁이 세차게 벌어졌으며 주체농법을 정확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되였다.



청춘의 위훈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투형식, 속도전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자력갱생의 원칙과 함께 속도전의 원칙, 전투형식을 견지하여야 한다.

≪속도전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 입니다.≫(김정일)

속도전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 최단기간내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다.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에 관한 문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투조직방식, 일본새에 관한 문제로서 사회주의건설에서와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위하여 옳게 해결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전투적인 사업조직방식과 일본새를 견지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전진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방대한 사업이며 수백, 수천만 근로자들의 창조적인 투쟁에 의해 수행되는 거창한 사업이다. 이로부터 모든 사업을 전투적인 방식과 일본새로 밀고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

만일 경제건설사업을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으로 보면서 그것을 전투적인 방식과 일본새로 밀고나가지 않는다면 답보와 침체를 면할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 수 없다.

속도전은 바로 경제건설을 전격전, 섬멸전의 방법, 일본새로 밀고나가 가장 높은 속도와 가장 높은 질을 다같이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수 있게 하는 기본전투형식이다.

속도전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맡겨진 과정을 최단기간내에 가장 빨리 수행하는 전투형식이다.

속도전에서는 제기되는 과업을 늦잡지 않고 지체없이 포치하며 일판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여시작한 일을 중단과 답보없이 불이 번쩍나게 해제낀다.

속도전은 또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업을 섬멸전의 방법으로 밀고나감으로써 제기된 과업을 제때에 철저히 수행하는 전투형식이다.

속도전은 정확한 과녁을 설정하고 인적 및 물적 역량을 중심적인 과업들과 과제를 수행하는데 집중시키며 그것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일단시작한 일은 하나씩하나씩 끝가지 해제끼게 한다. 그리하여 속도전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비약이 일어나게 한다.

속도전은 모든 사업을 최대한 빨리 밀고나가면서 그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게 하는 전투형식이다.

≪속도전의 기본요구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업을 최대한으로 빨리 밀고나가면서 그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속도전은 최단기간내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는 것입니다.≫(김정일)

속도전의 기본요구는 모든 사업에서 높은 속도와 높은 질을 다같이 보장하는 것이며 그것은 속도전의 본질적 측면의 하나를 이룬다. 빨리나간다고 하여 질을 낮추거나 질을 높인다고 하여 속도를 늦추는 것은 다 속도전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속도전에서의 높은 속도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질을 동반하는 속도이며 양과 질의 두 측면에서 다같이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는 속도이다.

이처럼 속도전은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 최단기간내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해나가는 기본전투형식이다.

속도전은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인 동시에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이 비약과 기적을 이룩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이다.

≪속도전을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치밑에,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 자각과 창조적 적극성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기적을 이룩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입니다.≫(김정일)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전개하는 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을 정확히 밝히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모든 사업은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수행되는 것만큼 그것은 근로대중의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킬 수 있는 올바른 사업전개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될 때에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속도전은 바로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치밑에 근로인민대중의 주인다운 자각과 창조적 적극성을 가장 높이 발양시킬 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이다.

사회주의경제는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경제이며 침체와 답보를 허용하지 않는 경제이다.

사회주의사회에는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어떠한 사회경제적 조건도 없으며 사회주의경제제도는 경제를 계획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준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근로자들은 과학과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하여 창조적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일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가 끊임없이 빨리 발전하는 것은 합법칙적이다.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속도전은 바로 끊임없이 빨리 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합법칙성,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정확히 구현하고 있는 혁명적 사업전개원칙이며 전투형식이다.

주체사상 총서 7권 ≪제4절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원칙과 전투형식≫